

무주 숙박·음식업 질 높인다

군, 여관·모텔을 관광호텔·굿스테이로 일반음식점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 추진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군이 일반 숙박시설을 관광호텔 또는 20실 이상의 굿스테이로, 일반음식점은 관광식당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와 2017 무주 WTF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로 가측단위,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무주군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시설은 여관이야 모텔을 30실 이상의 관광호텔이나 20실 이상의 굿스테이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지

원할 예정으로, 업소 당 총 사업비 중 1억 6천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60%(최고 지원금액 -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를 지원한다.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관광진흥법상에서 정의한 관광식당업(80석 이상의 입식테이블)으로 전환하고자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 좌석수로 차등을 두어 사업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토지와 건물은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 및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22일까지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육성 담당(320-2545)으로 방문 접수

하거나 우편접수(등기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전북도청 및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식 활용) 군 문화관광과 관광육성 김영관 담당은 "사업장의 경영 정상화와 관광객들의 만족스러운 무주여행을 돕는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 실현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관광호텔 1곳, 굿스테이 7곳, 관광음식점이 총 3곳이 있으며 이중 숙박시설 1곳, 식당 3곳이 시설 개선사업(2012~)을 통해 일반 숙박·음식점에서 굿스테이와 관광음식점으로 전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개최

“대체·소득작목 연구개발·보급 최선을”

유승열 의원, 5분발언서 당부

무주군의회(의장 이한승)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2016년 첫 회기의 장을 열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올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이한승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정과 군정이 서로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것이며, 소통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하고, “동료의원 모두와 화합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 할 것이며, 임시회가 올해 첫 회의인 만큼 상징된 안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해 달라”고



이한승 의장



유승열 의원

당부했다. 아울러, 1차 본회의 시 유승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주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열 의원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산지수집상에 의해 포진때매가 이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 시 무주군 통합마케팅조직의 사

업역량과 농산물 유통체계가 약화되어 지지기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협과의 장기 출하계약 확대, 반딧불조합공법인 이용 농가에 대한 지원,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대책 등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군에서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과로 분과한 만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작목 및 소득작목 연구개발과 보급에 힘써주시길 당부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주요안건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2016년도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센터 신축 외 3건)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청년 창업농 육성 나서

만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청 가능

완주군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농 육성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창업농을 모

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자이던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창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 완주군에 접수하면, 전북도 청년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받게 되면, 지원기간동안 의무교육인 창업준비과정(200~800시간)과 창업과정(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 지원기간의 2배인 4년 동안 영농중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농촌정책과 도농순환팀 전화 063)290-2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 고랭지 딸기재배 성공

부귀 원봉암마을 주명환씨 수막재배 생산비 ↓생산성 ↑



흔히 제철 과일은 자연적 기후에 따라 수확해서 먹는 과일을 말한다.

요즘에는 제철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 겨울철 딸기도 당분 함량이 높고 신맛이 적어 겨울철 과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진안고랭에서도 해발 330m에 자리잡고 있는 부귀면 원봉암 마을에서 겨울철 딸기 수확에 성공해서 화제다. 모진 한파를 이기고 올해 첫 선을 보인 부귀 고랭지 딸기는 과실이 크고 단단하다. 또한 실온에 1주일이상 노출되더라도 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부귀면에서 딸기를 첫 수확하기까지 원봉암 마을 주명환(50세)씨의 노력이 컸다. 주씨는 지난해부터 재배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거창 논산 등 딸기 주산지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다. 다소 늦은

9월에 본인의 600㎡ 시설하우스에 딸기묘를 정식했다.

꽃이 피고 수확하기까지 6~70일이 걸렸고 지금까지 800kg의 딸기를 직거래로 판매했다. 겨울철 난방은 비교적 따뜻한 지하수를 비닐하우스 지붕에 뿌려 온도를 유지하는 수막농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난방비 등 생산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주씨는 "부귀 고랭지 딸기는 과실이 크고 단단합니다. 특히 당분함량이 높고 신맛이 적어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부귀면은 전주권과 인접해 있어서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시설재배에 유리해 새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에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노후 슬레이트건물 120동 정비

1동당 최대 436만원 지원

진안군은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채취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노후 슬레이트건물 120동을 마을의 민집정비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의 건강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하였다.

군에 따르면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 민집정비 사업에 58,880만원을 확보하여 1동당 최대 436만원을 (슬

레이트지붕 처리비 : 최대 336만원, 본체 건물 철거비 : 최대 100만원) 지원 할 계획이다. 단, 사회취약계층(기초, 차상위)은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선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만경강 달빛축제, 20일 완주 창포마을서

한 해의 액운을 막고 소망을 비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만경강 달빛축제가 오는 2월 20일과 21일 완주군 창포마을에서 열린다.

올해 11번째를 맞는 만경강 달빛축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전통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는 전통 축제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당산제와 풍물패놀이 ▲완주문화제단, 완주예총, 은누리 예술

단, 다들이 합하니 공연단 등 지역 문화예술 동아리와 함께하는 전통놀이·공원마당 ▲한우 먹고 고향지르기 ▲창포마을 노래자랑 ▲달집태우기, 감강습대 등이 진행된다.

창포마을 유승진 촌장은 "전주 익산 등 도시지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창포마을 아이 달빛 축제장으로 오셔서 다양한 세시풍속도 체험하고, 울 한 해 액운을 막고 소망과 행복을 비는 풍성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로컬투리스

장수군, 공약사업 읍면 보고회

장수군은 15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에서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보고회는 3월 25일까지 실시되며 민선6기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 58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됐고 3개 사업은 주민의견수렴과 공약추진단 자문회의를 거쳐 폐지된 상태이며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장수군은 공약사업을 타 업무에 우선해 처리하고 장기 검토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절차이행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 19일까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대상자 모집

무주군은 2016년 다문화가족 친정(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군은 4천 8백만 원을 투입해 무주군 관내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 사부모 등 12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료료, 공항왕복교통비, 현지교통비 등 4백만 원 이내의 실비가 지원(무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회복지과 김미경 담당은 "체류기간은 오는 7~30일 이내로 여행사 등 본인이 모국방문을 원하는 시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친정나들이는 고향을 떠나고 무주에서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무주군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다문화가족 수는 188가정으로, 2011년부터 총 71가정이 이 사업을 통해 친정(고향)을 다녀왔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농업인대학 개강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15일 오후 1시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등 관내 농업인 등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장수군농업인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장수군농업인대학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사과, 한우, 오미자, 토마토 4과정에 213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전문가 초빙을 통한 맞춤형의 이론교육과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및 농업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론과 현장교육을 겸한 농업인대학이 농가들의 영농 기술 향상을 통해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교육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노인회, 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다음 달 3일까지 접수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가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노인안전 예방활동" 참여자 1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전문 자격과 사회적 경험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 분회와 무주군지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되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월 4회, 10시간 이상) 월 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 문의는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324-0516), 또는 읍면 분회로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고랭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랭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랭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권박산업과
063-430-2951